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Variables Affecting the Information Literacy

박 남 진(Nam-Jin Park)**

최 은 주(Eun-Ju Choi)***

목 차

1. 서론	3.3 데이터수집 및 조사변인
1.1 연구의 목적	3.4 설문지의 구성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3.5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2.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과 연구경향	3.6 표본 및 데이터의 기술적 특성
2.1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3.7 항목별 기술통계량
2.2 정보활용교육의 연구경향	3.8 가설 검증
3.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조사설계와 분석	4. 결론 및 제언
3.1 연구모형	4.1 결론
3.2 가설 설정	4.2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수강생의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보활용교육의 교육효과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정보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정보활용교육 수강 전후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관련지식, 도서관이용빈도 및 정보활용능력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하였다.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의 사전교육경험과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이용지식 및 자료이용빈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수강생의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on literacy of students and the effect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aimed at presenting plans for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hereafter. The differences in the mean value of computer operating skill, library related knowledge, frequency of library use and information literacy prior to and after taking the course i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were compared.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on the effects of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 computer operating skill, knowledge of library use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use have on information literac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se satisfaction and opinion after taking the lecture were all adopted.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ed that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program is urgently needed.

키워드: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교육, 사전교육경험, 도서관이용지식, 자료이용빈도, 이용자교육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
Knowledge of library Use, Frequency of Information Use, User Education, Library Instruction

*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물을 요약한 것임.

** 경기대학교 금화도서관(true@kyonggi.ac.kr)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ejchoi@kyonggi.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8월 15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변화된 정보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검색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므로써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순탄하게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진출 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보이용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곧 대학의 임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도서관 안내나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특강형태의 교육 혹은 학과 요청에 의한 수업관련 교육 등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교육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실시 횟수 또한 일회성에 그쳐 단순한 시설안내나 도서관 이용방법 또는 온라인목록이나 몇몇 D/B검색법만을 교육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정보원의 소개와 검색실습 및 논문작성법 등을 심도 있게 교육하는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관련지식, 도서관이용빈도 및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사전

교육경험과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이용지식 및 자료이용빈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 학기 동안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받은 수강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정보활용교육 수업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규 정보활용교육 수업의 교육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병행한다. 먼저 국내의 정보활용교육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학을 선별한다. 이들 대학의 2005학년도 제2학기 강의시간표를 조사하여 교양과목에 개설된 정규 교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강좌 수강생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확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기초에는 사전설문조사를, 학기말에는 사후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SAS 9.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인 수강생의 대학, 계열, 학년, 성별 등 집단별 구분에 따른 수업이전과 이후의 교육효과는 분석이 가능하나 개개인의 수업이전과 이후의 교육효과까지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학별로 담당 교수의 지도방법이나 교육내용 및 수강인원과 강의실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과 연구경향

2.1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피교육자가 끊임없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을 계속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장이다. 이 과정에서 피교육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활용교육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권나현 2004). 과거에는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자료의 위치나 검색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지교육이나 도서관이용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정보의 내용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단순한 기술교육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정보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야 한다. 또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정보자주성을 갖추으로써 개인의 인격성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영만 2001). 그러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활용교육은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한계가 있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연구조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학기 동안

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육하는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강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2.2 정보활용교육의 연구경향

정보활용능력에 주요한 영향요소가 되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결과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편의상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①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을 제시한 연구, ② 동일 집단의 교육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 ③ 다른 집단간 교육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 ④ 정보활용교육의 모형을 비교 분석한 연구, ⑤ ACRL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정보활용교육 내용 제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범위 등을 제시한 연구로 Meulemans와 Brown(2001)은 인터넷의 등장과 전자도구사용의 증대로 학술검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지교육의 개념과 관습이 크게 달라졌음을 지적하고 소장 대학의 자료검색 및 접근법과 함께 수많은 인쇄 자료 및 전자자료의 이용법과 이러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하였다. Fonseca와 King(2000)은 인터넷과 전통적 정보활용교육의 통합을 위해 전통적 도서관검색 교육과 웹 통합을 위한 지침서를 주장하고 훌륭한 검색을 위해 탐색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가 없이 인터넷을 선

호하는 이용자들의 성향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검색결과를 위해서는 검색전략을 세우고 알맞은 주제용어를 선택해야한다고 하였다.

2.2.2 동일 집단의 교육효과 비교 분석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 수강 이전과 이후의 인지도, 이용빈도 및 이용능력 등의 차이를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Bordonaro와 Richardson(2004)은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 도서관에서 느끼는 편안함, 검색능력의 자신감, 인쇄자료, 온라인저널 및 웹 자료에 대한 소장위치의 지식, 정보평가 방법의 이해 등을 1차 조사한 뒤, 도서관이용교육을 실시하고 2차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의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탐색과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학습과정의 영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ortmann과 Roush(2004)는 200-level 사회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8명에게 1시간 과정의 도서관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이용교육 2주 전후에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 이용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도서관 기술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다른 집단간 교육효과 비교 분석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 수강 여부에 따른 인지도, 이용빈도 및 이용능력 등의 차이를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이정연과 최은주(2006)는 정보활용교육 과목을 수강한 실험집단과 다른 교양과목을 수강한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학기초와

학기말 평가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사전 및 사후 점수의 변화를 각 정보영역별로 분석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험 후의 태도영역 변화에 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보활용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에 변화가 있음을 규명하고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인지적, 태도적 측면 모두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으로서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Larkin과 Pines(2005)는 130명의 심리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과 검색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보활용능력 효과가 상위등급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 정보활용교육 모형 비교 분석

여러 선행연구의 정보활용교육 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학습모형을 제시한 연구로 박명규(2004)는 정보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① 스트리플링-피츠 연구조사과정 모형, ② 콜터우 정보탐색과정 모형, ③ 파파스-테프 모형, ④ 빅6 정보문제해결 모형, ⑤ 캘리포니아 학교도서관협회 모형, ⑥ 영국 국가 및 대학도서관협회 모형, ⑦ 호주와 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모형 등 7가지 정보활용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정보 접근력, ② 정보 선별력, ③ 정보 통합력, ④ 정보 표현력, ⑤ 정보 감상력 등 5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내용과 수준별 학습활동

의 예를 제시하였다. 고영만(2004)은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해 미국의 ACRL, 영국의 SCONUL 및 호주·뉴질랜드의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에서 제시한 정보활용능력 표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과정이 개설된 뉴멕시코 주립대학(NMSU), 헤이워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H), 동인디애나 주립대학(IUE)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웹기반교육, 교과수업지원교육, 자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소개하고 교육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도 1학기 과목 수강생에게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강혜영(2002)은 미국, 영국,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9가지 모델과 ACRL 기준을 비교하고 공통적 요소로 ① 정보요구확인, ② 정보원이해, ③ 정보접근 전략과 기술, ④ 정보탐색과 기술, ⑤ 정보평가와 종합, ⑥ 정보비용의 6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2.2.5 ACRL 기준 적용 비교 분석

ACRL의 정보활용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활용능력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이현실과 최상기(2006)는 ACRL의 기준을 근간으로 전북대학교 학부생 107명과 원광대학교 학부생 109명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대학별 집단간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대학별 집단간 인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ACRL 기준에서 단계간의 인식도 측정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계별 측정에서 하위 지침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Monoi 등(2005)

은 이용교육수업에 참여한 1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CRL의 '정보활용능력 기준 및 수행 척도'를 적용하여 온라인 검색과 관련된 자기효능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자기효능 수준을 평가하며 자기효능과 수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ACRL의 87개 세부지침 중 4가지 세부지침을 선택 적용하여 12개의 항목을 만들고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결과 탐색 전략구축, 추가전략실행, 통제어사용, 명확한 키워드의 순서로 사후 점수가 증가하였고 '이용교육 후 자기효능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과제수행을 잘하면 자신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이현실(2004)은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ACRL의 5가지 기준을 교수, 사서 등 전문가 집단 31명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별로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조사하고 평균점수와 순위를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보활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연구하거나 정보활용교육 모형을 비교하여 새로운 평가모형 또는 교육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미국 ACRL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비교한 이론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정보활용능력을 비교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대상이 동일한 집단일 경우에는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분석단위를 연구하는 종단면적 연구(longitudinal study) 방법을 실시하고, 실험대상이 다른 집단일 경우에는 집단간

의 교육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하는 횡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방법을 실시한다(김렬 199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단면적 연구를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사한 이용교육수업의 교육시간이 길지 않고 실시회수 또한 한두 번에 그쳐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많고(Ragains 1997) 교육효과를 신뢰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횡단면적 연구를 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조사대상 집단을 다양하게 비교하지 못하고 한 두 학급이나 한 두 대학의 수강생을 비교하는 데 머물러 일반화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정규 정보활용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여러 대학의 서로 다른 실험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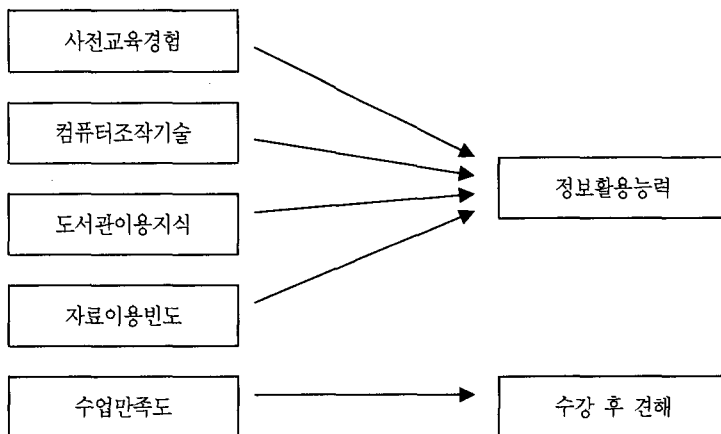
3.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조사설계와 분석

3.1 연구모형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 이전의 교육경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이용지식 및 자료이용빈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수강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수업을 수강한 후에 느끼는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3.2 기설 설정

정보활용교육 수강생들의 개인적 능력 및 속성과 정보활용능력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수강생의 개인적 능력과 속성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대가설과 이에 따른 작업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모형

- 가설1 사전교육경험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컴퓨터조작기술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도서관이용지식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자료이용빈도는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수업만족도는 수강 후 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탕으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한 후,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강사의 양해하에 수업시작 직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이 끝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1차 조사(사전 설문지)는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319부를 회수하였고, 2차 조사(사후 설문지)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78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이 끝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여 회수율은 100%이다. 1차 조사 설문지 319부와 2차 조사 설문지 278부를 코딩하여 성별, 학년, 학과, 사전에 경험한 교육형태, 수업선택동기 값을 비교한 후 일치하지 않는 설문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누락된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역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2차 조사 모두 정확하게 응답한 229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 데이터수집 및 조사 변인

3.3.1 데이터수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 가운데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47개 대학을 1차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의 2005학년도 제2학기 강의시간표를 조사하여 교양과정에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이 개설된 경기대(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대진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안양대, 연세대, 홍익대를 2차 선정하였다. 그 중 경기대는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모두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양 캠퍼스에 각각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총 9개 대학 10개 강좌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2개 대학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7개 대학 8개 강좌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의견과 예비조사 결과를

3.3.2 조사 변인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변수군과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정보활용능력 변수군에 속한 10개의 변수들은 미국 ACRL 기준을 참고하여 비교적 응답자의 이해가 용이하고 의미전달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각 기준마다 2개씩 총 10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3.4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문항은 총 63개이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전교육경험 및 수업선택동기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컴퓨터조작기술, 수업만족

도, 도서관관련지식, 정보활용능력, 도서관이용빈도 및 수강 후 견해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 문항은 서술형으로 '향후 본 수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5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변수들이 측정값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의 척도로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Alpha) 계수 값을 사용하였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3.5.1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결과,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관련지식(용어지식, 이용지식), 도서관이용빈도(자료이용빈도, 검색이용빈도), 정보활용능력, 수업만족도, 수강 후 견해 등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Alpha 계수 값이 0.6과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2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신뢰성 검증으로 추출된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결과, 컴퓨터조작기술(PC, 인터넷, OA), 용어지식(2차 도구, OPAC,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SDI, 과제도서), 이용지식(전자자료검색, 인쇄자료검색, 타 대학알림의뢰서신청, 상호대차신청, SDI신청, 주제조사의뢰와 도서대출, 도서연기, 도서예약, 본교 소장자료검색, 도서관입신청), 자료이용빈도(학술지, 학위논문, 전자

자료), 검색이용빈도(타 대학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검색, 인쇄자료검색), 정보활용능력(정보선택기준, 검색조건수정, 반복검색, 관련정보기록, 정보비교, 검증된 정보선택), 수업만족도(OPAC검색, 인터넷검색, 참고자료활용, 전자저널검색, 논문작성법과 체계적 구성, 이해정도, 실습비율), 수강 후 견해(주위추천, 향후도움, 교양필수, 신입생필수) 등 변수들의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표본 및 데이터의 기술적 특성

7개 대학 8개 강좌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본 강좌 이전의 교육경험 및 선택동기를 성별, 학년, 계열, 대학별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았다.

3.6.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대학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는데 그 이유는 여자대학인 서울여대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홍익대, 상명대 등 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가장 많은데 이는 정보활용교육 강좌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전공학점보다 교양학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에 따라 계열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강좌의 개설학기, 개설요일 등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표 1〉 각 대학 응답자의 성별, 학년별 및 계열별 분포

빈도(비율)

번호	대학명	성별		학년별				계열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1	경기대(서울)	7(26.9)	19(73.1)	16(61.5)	7(26.9)	0(0.0)	3(11.5)	6(23.1)	14(53.8)	6(23.1)	0(0.0)
2	경기대(수원)	9(34.6)	17(65.4)	19(73.1)	1(3.8)	4(15.4)	2(7.7)	6(23.1)	4(15.4)	14(53.8)	2(7.7)
3	대진대	19(57.6)	14(42.4)	11(33.3)	9(27.3)	9(27.3)	4(12.1)	9(27.3)	10(30.3)	13(39.4)	1(3.0)
4	상명대	17(43.6)	22(56.4)	26(66.7)	7(17.9)	4(10.3)	2(5.1)	18(46.2)	11(28.2)	6(15.4)	4(10.3)
5	서강대	13(72.2)	5(27.8)	4(22.2)	3(16.7)	5(27.8)	6(33.3)	3(16.7)	4(22.2)	11(61.1)	0(0.0)
6	서울여대	0(0.0)	27(100.0)	18(66.7)	6(22.2)	0(0.0)	3(11.1)	3(11.1)	9(33.3)	13(48.1)	2(7.4)
7	안양대	6(60.0)	4(40.0)	1(10.0)	2(20.0)	4(40.0)	3(30.0)	5(50.0)	4(40.0)	1(10.0)	0(0.0)
8	홍익대	18(36.0)	32(64.0)	14(28.0)	16(32.0)	9(18.0)	11(22.0)	17(34.0)	2(4.0)	22(44.0)	9(18.0)
총계	7개 대학 8개 강좌	89(38.9)	140(61.1)	109(47.6)	51(22.3)	35(15.3)	34(14.8)	67(29.3)	58(25.3)	86(37.6)	18(7.9)

3.6.2 응답자의 사전교육경험

응답자가 본 강좌 수강이전에 받았던 정보활용교육의 형태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계열별, 대학별 모두 50%를 넘는 학생들이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특강이나 수업관련교육을 받은 학생도 성별, 학년별, 계열별, 대학별

모두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도서관 이용 관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6.3 응답자의 수업선택동기

응답자가 본 수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

〈표 2〉 성별, 학년별 및 계열별 사전교육경험 분포

빈도(비율)

변수	성별		학년별				계열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오리엔테이션	21(23.6)	16(11.4)	12(11.0)	5(9.8)	10(28.6)	10(29.4)	7(10.4)	13(22.4)	16(18.6)	1(5.6)
특강	2(2.2)	4(2.9)	4(3.7)	1(2.0)	1(2.9)	0(0.0)	2(3.0)	2(3.4)	2(2.3)	0(0.0)
수업관련 교육	9(10.1)	10.1(7.1)	6(5.5)	5(9.8)	4(11.4)	4(11.8)	6(9.0)	5(8.6)	7(8.1)	1(5.6)
교육받은 적 없다	57(64.0)	110(78.6)	87(79.8)	40(78.4)	20(57.1)	20(58.8)	52(77.6)	38(65.5)	61(70.9)	16(88.9)
합계	89(100.0)	140(100.0)	109(100.0)	51(100.0)	35(100.0)	34(100.0)	67(100.0)	58(100.0)	86(100.0)	18(100.0)

〈표 2-1〉 대학별 사전교육경험 분포

빈도(비율)

변수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대진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안양대	홍익대
오리엔테이션	1(3.8)	0(0.0)	2(6.1)	7(17.9)	15(83.3)	3(11.1)	5(50.0)	4(8.0)
특강	0(0.0)	0(0.0)	1(3.0)	3(7.7)	1(5.6)	1(3.7)	0(0.0)	0(0.0)
수업관련 교육	1(3.8)	1(3.8)	4(12.1)	5(12.8)	1(5.6)	3(11.1)	1(10.0)	3(6.0)
교육받은 적 없다	24(92.3)	25(96.2)	26(78.8)	24(61.5)	1(5.6)	20(74.1)	4(40.0)	43(86.0)
합계	26(100.0)	26(100.0)	33(100.0)	39(100.0)	18(100.0)	27(100.0)	10(100.0)	50(100.0)

펴보면, '도서관 자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와 '논문(레포트)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수업선택동기에 응답한 비율이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수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적극적인 수업선택동기에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4학년의 수업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별로는 예·체능계, 대학별로는 모든 대학에서 60% 이상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선택동기를 나타냈다.

3.7 항목별 기술통계량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받기 이전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은 이후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관련지식, 도서관이용빈도 및 정보활용능력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3.7.1 컴퓨터조작기술의 기술통계량

PC(압축, 포맷, 편집), 인터넷(자료검색, 다운, 전송), O/A(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조작기술은 아래 <표 4>와 같이 교육이전에도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3.0보다 높아 평소에 비교적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2 도서관관련지식의 기술통계량

도서관관련지식은 용어에 대한 지식과 이용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이후에도 OPAC, 상호대차, SDI에 대한 용어지식과 인쇄자료검색, 타 대학열람의뢰신청, 상호대차신청, SDI신청, 주제조사의뢰 방법에 대한 이용지식은 여전히 평균 3.0보다 낮아 이에 대

<표 3> 성별, 학년별 및 계열별 수업선택동기 분포

변수	성별		학년별				계열별				빈도(비율)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자료이용 잘하려고	33(37.1)	59(42.1)	41(37.6)	17(33.3)	15(42.9)	19(55.9)	27(40.3)	19(32.8)	38(44.2)	8(44.4)	
논문작성 잘하려고	20(22.5)	42(30.0)	31(28.4)	18(35.3)	6(17.1)	7(20.6)	20(29.9)	19(32.8)	17(19.8)	6(33.3)	
주위사람의 권유로	23(25.8)	22(15.7)	21(19.3)	11(21.6)	8(22.9)	5(14.7)	14(20.9)	11(19.0)	18(20.9)	2(11.1)	
학점을 얻기 쉬워서	13(14.6)	17(12.1)	16(14.7)	5(9.8)	6(17.1)	3(8.8)	6(9.0)	9(15.5)	13(15.1)	2(11.1)	
합계	89(100.0)	140(100.0)	109(100.0)	51(100.0)	35(100.0)	34(100.0)	67(100.0)	58(100.0)	86(100.0)	18(100.0)	

<표 3-1> 대학별 수업선택동기 분포

변수	빈도(비율)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대진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안양대	홍익대	
자료이용 잘하려고	11(42.3)	12(46.2)	20(60.6)	0(0.0)	11(61.1)	9(33.3)	2(20.0)	27(54.0)	
논문작성 잘하려고	11(42.3)	4(15.4)	2(6.1)	24(61.5)	1(5.6)	10(37.0)	70(70.0)	3(6.0)	
주위사람의 권유로	3(11.5)	6(23.1)	4(12.1)	11(28.2)	3(16.7)	3(11.1)	0(0.0)	15(30.0)	
학점을 얻기 쉬워서	1(3.8)	4(15.4)	7(21.2)	4(10.3)	3(16.7)	5(18.5)	1(10.0)	5(10.0)	
합계	26(100.0)	26(100.0)	33(100.0)	39(100.0)	18(100.0)	27(100.0)	10(100.0)	50(100.0)	

〈표 4〉 컴퓨터조작기술의 기술통계량

변수군	변수	교육이전		교육이후		평균값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조작기술	PC	3.310	1.045	3.467	0.985	0.157
	인터넷	3.755	0.869	3.747	0.798	-0.008
	OA	3.039	0.957	3.140	0.921	0.101

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한편, 2차도구, 상호 대차, 참고서비스에 대한 용어지식과 타 대학 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검색에 대한 이용지식은 평균값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7.3 도서관이용빈도의 기술통계량

도서관이용빈도는 자료이용빈도와 검색이용빈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Dewald(2005)와 윤상림(2004)의 조사와 같이 교육이전에는 인터

넷자료검색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도서관이용빈도가 평균 3.0보다 낮아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도구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학술지, 학위논문, 전자자료 등의 자료이용빈도와 타 대학 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검색, 인쇄자료검색 등의 검색이용빈도는 교육이후에도 여전히 평균 3.0보다 낮아 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변수들 가운데, 전자자료검색 이용빈

〈표 5〉 도서관관련지식의 기술통계량

변수군	변수	교육이전		교육이후		평균값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용어지식	2차도구	2.328	0.909	3.406	0.804	1.078
	OPAC	1.507	0.747	2.240	0.858	0.733
	상호대차	1.895	1.050	2.908	1.194	1.013
	참고서비스	2.127	0.981	3.249	0.952	1.122
	SDI	1.677	0.874	2.629	1.038	0.952
	과제도서	2.314	1.033	3.240	0.945	0.926
이용지식	도서대출	3.974	0.936	4.323	0.682	0.349
	도서연기	3.428	1.243	4.153	0.873	0.725
	도서예약	3.109	1.281	3.734	1.061	0.625
	본교 소장자료검색	3.594	1.020	4.179	0.760	0.585
	타 대학소장자료검색	2.445	1.040	3.607	0.938	1.162
	인터넷자료검색	3.493	0.972	3.996	0.775	0.503
	전자자료검색	2.406	1.041	3.410	1.012	1.004
	인쇄자료검색	2.070	0.929	2.895	0.897	0.825
	타 대학열람의뢰신청	1.821	0.821	2.655	0.912	0.834
	도서구입신청	2.773	1.196	3.616	1.031	0.843
	상호대차신청	2.066	0.951	2.921	1.081	0.855
	SDI신청	1.611	0.721	2.275	0.893	0.664
	주제조사의뢰	1.808	0.852	2.463	0.943	0.655

도는 교육이후에 평균값이 1.0 가까이 높아져 교육효과가 컸으나,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학술지 등의 자료이용빈도는 교육이후에도 교육 이전과의 평균값차이가 0.3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이용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7.4 정보활용능력의 기술통계량

정보활용능력은 진혜영과 황인영(2003)의

조사와 같이 유일하게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평균값만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이후에는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개 변수 모두 교육이전과 이후의 평균값차이가 0.4 이하로 매우 낮아,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도서관이용빈도의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군	변수	교육이전		교육이후		평균값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료이용빈도	단행본	2.655	1.327	3.153	1.228	0.498
	참고자료	1.882	1.030	2.144	1.052	0.262
	정기간행물	1.611	0.951	1.869	1.005	0.258
	학술지	1.498	0.872	1.790	1.013	0.292
	학위논문	1.345	0.725	1.834	1.096	0.489
	전자자료	1.424	0.822	2.066	1.235	0.642
검색이용빈도	본교 소장자료검색	2.991	1.274	3.568	1.085	0.577
	타 대학소장자료검색	1.362	0.792	1.838	0.967	0.476
	인터넷자료검색	3.240	1.432	3.939	1.062	0.699
	전자자료검색	1.524	0.911	2.520	1.333	0.996
	인쇄자료검색	1.380	0.783	1.869	0.937	0.489

<표 7> 정보활용능력의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군	변수	교육이전		교육이후		평균값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보활용능력	정보인식	정보선택기준	3.314	0.809	3.537	0.716	0.223
		검색조건수정	3.677	0.811	3.852	0.728	0.175
	정보접근	반복검색	3.747	0.793	3.948	0.771	0.201
		관련정보기록	3.109	1.048	3.410	0.935	0.301
	정보평가	정보비교	3.493	0.925	3.620	0.816	0.127
		검증된 정보선택	3.362	0.896	3.489	0.841	0.127
	정보활용	경험검색	3.454	0.885	3.725	0.821	0.271
		정보사용	3.419	0.754	3.624	0.700	0.205
	정보윤리	저작권	3.314	1.003	3.681	0.917	0.367
		윤리적 사용	2.821	0.858	3.166	0.982	0.345

3.8 가설 검증

정보활용교육 수강생들의 개인적 능력 및 속성과 정보활용능력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수강생의 개인적 능력과 속성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대가설 하에 5가지의 작업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8.1 사전교육경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 이용지식, 자료이용빈도와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1) 사전교육경험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정규과목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받기 이전의 교육경험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3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가설1의 검증결과, 사전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뿐

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기간의 도서관이용안내, 특강형태교육, 수업연계교육 및 웹 기반교육(web-based instruc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본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컴퓨터조작기술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컴퓨터조작기술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1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설2의 검증결과, 압축, 포맷, 편집 등 PC조작기술과 자료검색, 다운, 전송 등 인터넷조작기술 및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OA조작기술이 뛰어난 학생이 정보활용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서관이용지식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식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001

〈표 8〉 사전교육경험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구분	응답자	정보활용능력		F 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사전교육경험	229	0.518	0.733	2.97	0.0326*

* P < 0.05

〈표 9〉 컴퓨터조작기술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구분	응답자	정보활용능력		F 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조작기술	229	0.518	0.733	2.14	0.0159*

* P < 0.05

<표 10> 도서관이용지식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구분	응답자	정보활용능력		F 값	p-값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이용지식	229	0.518	0.733	3.56	0.0001**

* P < 0.05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가설3의 검증결과, 도서관자료 이용과 검색 및 도서관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정보활용능력 또한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담당 교수는 사서로부터 평소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Sinn 2000) 실습을 통해 도서관이용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협력수업을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4) 자료이용빈도와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자료를 이용한 빈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가설4의 검증결과,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포함한 도서관자료의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담당 교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이용을 장려하고 (Opaleke 1998) 학생이 도서관자료를 자주 접하도록 타 전공 교수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8.2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와의 관계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정보활용교육 수업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수업만족도를 수업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고 수강 후 견해를 중

<표 11> 자료이용빈도와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구분	응답자	정보활용능력		F 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자료이용빈도	229	0.518	0.733	2.92	0.0001**

* P < 0.05 ** P < 0.01

<표 12>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와의 관계

모형	표준오차	t 값	p-값
상수	0.262	1.60	0.1121
수업전반	0.081	6.88	0.0001**
수업내용	0.076	4.22	0.0001**

Adj R-Sq : 0.388 * P < 0.05 ** P < 0.01

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Adj R-Sq 0.388로 38.8%가 표본 회귀선에 적합하고 유의확률(p-값)이 수업전반과 수업내용 모두 0.000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가설5의 검증결과, 수업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수강 후 견해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업담당 교수는 학생의 관심분야와 전공 및 능력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지적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수강생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다음수업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3.8.3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와의 상관관계 분석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의 변수간 상호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고 유의수준도 0.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의 교육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정보활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정보활용교육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활용교육 전후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관련지식, 도서관이용빈도 및 정보활용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전교육경험과 컴퓨터조작기술, 도서관이용지식 및 자료이용빈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전체 응답자 229명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여학생, 학년별로는 1학년, 계열별로는 자연계 학생들이 많았다. 사전교육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수업관련 교육'과 '특강형태 교육'을 받은 학생도 10%를 조금 넘어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였다. 본 과목 선택동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를 넘는 응답자가 적극적인 수업선택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학년별로는 4학년, 계열별로

〈표 13〉 수업만족도와 수강 후 견해와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수업만족도		수강 후 견해
		수업전반	수업내용	
수업만족도	수업전반	1.000	0.573(0.0001**)	0.587(0.0001**)
	수업내용		1.000	0.516(0.0001**)
수강 후 견해				1.000

** P < 0.01

는 예·체능계, 대학별로는 안양대 학생들의 수업선택동기가 적극적이었다.

정보활용교육 수강 전후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컴퓨터조작기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관관련지식은 2차도구,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등 용어지식과 타 대학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 등 이용지식의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용빈도는 단행본과 본고 소장자료검색 및 인터넷자료검색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이용빈도와 검색빈도가 교육이후에도 여전히 낮아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보였다. 정보활용능력은 교육이전과 이후의 평균값차이가 작아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결과, '사전교육경험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과 '컴퓨터조작기술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 '도서관이용지식은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 및 '자료이용빈도는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4, 그리고 '수업만족도는 수강 후 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5 등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수업전반과 수업내용, 수업전반과 수강 후 견해, 수업내용과 수강 후 견해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규 정보활용교육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결과 재학생수가 3,000명 이상인 서울·경기 지역의 4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

활용교육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9개 대학에 불과하였다. 대학당국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강좌를 반드시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야한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0%를 상회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전혀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수강 이전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1의 검증결과를 볼 때,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정규과목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강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시로 교육 경험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활용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실습시간의 비율이 높지 않았을 뿐더러 응답자 다수가 실습교육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수는 실습을 통한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수업 내용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결과 도서관의 자료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의 도서관이용지식이 많을수록, 가설4의 도서관자료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검증결과를 볼 때,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이나 전자정보원 등을 이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이들이 도서관이용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넷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예비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

국, 호주 등과 같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한 학기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조사시점을 1학기과 2학기과 구분하여 비교한다면 보다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대학 정보활용교육 교재의 내용분석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효과적인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수업방향결정과 기준마련에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수강인원 및 교육환경 조건 등을 포함한 조사와 수강생 개인에 대한 교육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고영만. 2001. 정보교육의 문화적 담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79-92.
- _____. 2004. 대학생을 위한 정보문해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67-87.
- 권나현. 2004.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 김렬. 1999.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박영사.
- 박남진. 2000.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형태에 따른 교육적 효율성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명규. 2004.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교과 교육과정 모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상림. 2004.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온라인 튜토리얼 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322.
- _____. 최상기.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91-112.
- 전국대학연감편찬위원회. 2005. 『2005 全國大學年鑑』. 서울: 한국산업정보원 부설 전국대학연감편찬위원회.
- 진혜영, 황인영. 2003. 국내 대학의 정보이용능력 교양교육의 표준 지침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85-294.
- Bordonaro, Karen and Gillian Richardson.

2004. "Scaffolding and reflection in course-integrated library instruc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5): 391-401.
- Dewald, Nancy H. 2005. "What do they tell their students? business faculty acceptance of the web and library databases for student research."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3): 209-215.
- Fonseca, Tony and Monica King. 2000. "Incorporating the internet into traditional library instruction." *Computers in Libraries*, 20(2): 38-42.
- Larkin, Judith E. and Harvey A. Pines. 2005. "Developing information literacy and research skills in introductory psychology: a case stud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1): 40-45.
- Meulemans, Yvonne Nalani and Jennifer Brown. 2001. "Educating instruction librarians: a model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Research Strategies*, 18(4): 253-264.
- Mono, Shinichi, Nancy O'Hanlon and Karen R. Diaz. 2005. "Online searching skills: development of an inventory to assess self-efficac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2): 98-105.
- Opaleke, J. S. 1998. "Effect of the user education programme on undergraduate students' library exploration at the university of Ilorin."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0(4): 275-287.
- Portmann, Chris A. and Adrienne Julius Roush. 2004. "Assessing the effects of library instruc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6): 461-465.
- Ragains, Patrick. 1997.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ians' instructional performance: report of a national survey." *Research Strategies*, 15(3): 159-175.
- Sinn, Robin N. 2000. "A comparison of library instruction content by biology faculty and librarians." *Research Strategies*, 17(1): 23-34.